

芝峯 李睟光의 學問觀에 대한 一考

김 병 주*

< 目 次 >

- | | |
|----------------|---------------------|
| I. 서론 | IV. 자기 수양을 통한 자타 인식 |
| II. 학문 방법론 | V. 결론 |
| III. 실천을 위한 심학 | |

<국문 초록>

본고는 先秦儒學의 문헌을 중심으로 무실론에 입각한 芝峯 李睟光(1563년-1628년)의 학문 방향성과 성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고찰하였다.

첫째, 지봉은 당시 학자들이 강조하는 四書三經뿐만 아니라 치국을 위한 기초적 배움을 내포하고 있는 六經도 그의 학문적 토대인 기본 경전으로 강조하고 있다. 육경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한 문자로서의 공부가 아닌 마음으로 체득하고 이를 실천하는 致用性에 두었다.

둘째, 학문의 방법은 앎을 통한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학문을 참학문으로 정의하였다. 참학문의 최종 목적은 민생의 의식주 해결로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표방한 것이 아닌 민생을 위한 日用平常의 학문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지봉은 문자중심과 이론중심의 학문이 아닌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체득과 실천중심의 학문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봉은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모든 사물의 주체로 보고 스

* 공주대학교 입학사정관 / inner_moderation@naver.com

스로의 사욕을 제거하고, 자기와 타인, 사람과 사물이 모두 평등해지는 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결국, 지봉의 학문은 다방면의 학문을 수용 절충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학문을 이해하면서 자기 성찰을 통한 수양으로 이어지는 유학의 학문범주를 따르고 있다.

【주제어】 芝峯, 儒學, 學問觀, 致用, 實踐

I. 서론

본고는 芝峯 李睟光(1563년-1628년)¹⁾이 저술한 여러 작품 내용 중 학문과 관련된 내용을 修己治人을 위한 儒學의 학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그의 학문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봉이 살았던 시대는 정주계 성리학파 禮學이 사상 및 학문의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시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太極과, 理氣 등의 이론을 탐구하는 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다.²⁾ 그러나 지봉은 太極, 理氣 등과 같은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에만 집중하지 않고, 관념철학의 성격을 벗어나 수양론적 문제와 실천철학적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성을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수용에 있어 실학적 사유 방법을 추구하고 있었다.³⁾ 이는, 外交使臣으로서 세 번의 燕行과 서양의 과학과 학문을 소개하던 왜란에서 계축옥사까지의 여러 사건들이 그의 사상과 학문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양의 과학과 학술을 조선에 소개하였으며,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에서부터 신변잡기까지 폭넓은 학

1) 李睟光의 本貫은 全州이며, 字는 潤卿, 號는 芝峯으로 1563년(명종 18년)부터 1628년(인조 6년)까지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의 4대에 걸쳐 살았던 인물이며, 芝峯이 살았던 이 시대는 왜란(1592년~1598년), 계축옥사(1613년), 인조반정(1623년), 이괄의 난(1624년), 정묘호란(1627년)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던 시기임.

2) 윤사순, 『실학의 철학적 특성』, 나남, 2008, p.192.

3) 금장태, 『한국 실학사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pp.25-28.

문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로 하여금 새로운 학문관과 현실적 인식을 갖도록 하였을 것이다.⁴⁾ 그러나 단순한 시대적 상황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爲己之學의 학문 방법을 탈피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 방법의 준거가 있었을 것이다. 본고는 그 근거를 유학의 학문 방법에서 찾고자 한다.

보통 儒學은 修己治人을 그 이념으로 한다.⁵⁾ 이는 유학에서 말하는 앎과 실천의 문제로 學問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學問을 가장 중요시 한 인물은 孔子다. 孔子는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기쁘다.”⁶⁾라는 표현으로 학문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학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의 즐거움은 비단 배움을 통한 지적 추구내지 내적수양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내적 수양을 의미하기 보다는 배움을 통한善한 본성의 회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배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움은 자기의 수양인 동시에 安人을 위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을 위한 배움에 대해 孔子는 “『詩經』 3백편을 외우되 정치를 해내지 못하고 四方에 使臣으로 나가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안다한들 어디에 쓰겠는가”⁷⁾라 하여 학문의 최종 목표가 實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孔子의 이 말을 程子は “經書を 窮究함은 장차 實用을 이루려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못하면 章句의 지엽적인 것으로 배우는 자의 큰 근심”⁸⁾이라고 하여 학문의 목적이 實用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또한, 『禮記』 「學記篇」의 “군자가 백성을 교화시키고 좋은 풍속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4)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실학사상사』, 심산, 2008, pp.45-48.

5) 金顯玉, 「正祖의 經世思想 研究 -<策問>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대학원 한문교육학과 한문교육전공 박사논문, 2010, p.57.

6) 『論語』, 「學而篇」, 1장,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7) 『論語』, 「子路篇」, 5장, “子曰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8) 『論語』, 「子路篇」, 5장, 朱熹註, “程子曰 窮經將以致用也. 世之誦詩者 果能從政而專對乎. 然則其所學者 章句之末耳. 此學者之大患也”

시 배움을 말미암아야 할 것이다.”⁹⁾라 하여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백성의 교화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大學』에서 “大學의 道는 明德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친애함에 있으며, 至善에서 그침에 있다”라 하여 학문의 방법론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大學』에서 말하고 있는 학문의 방법은 자기 수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한 治人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학은 바로 이러한 修己를 통한 실천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修己를 통한 實用이 진정한 학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학의 수기치인 중심의 학문관은 지봉의 학문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지봉이 살았던 시기는 학문적으로 성리학을 강조하던 시대이다. 지봉 역시 성리학적 사회 체제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존 정치사상에서 볼 수 없었던, 懋實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그의 사상에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조에게 올린 「條陳懋實筭子」에 집약된 그의 사상은 무실을 통해 이상사회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¹⁰⁾

지봉은 무실을 주제로 하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實”에 힘 쓴다는 것은 실제생활을 진실하며 의미 있게 영위하고 현실생활을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유학 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 지봉의 사상은 현실적 문제를 “實”로 해결하여 일상으로 접근하는 유학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實”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은 지봉의 학문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학문관을 유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봉에 대한 선행연구업적은 지봉유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관, 경제관, 문학관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학문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과 관련한 지봉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근수(1979) 논문에서는 지봉의 학문관을 단순한 저술 내용으로만 소개하였으며, 한영

9) 『禮記』, 「學記篇」, 1장,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10) 金秉柱, 「芝峯 李睟光의 懋實의 經世思想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한문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p.4.

11) 윤사순, 『실학의 철학적 특성』, 나남, 2008, pp.187-188.

우(1996)의 논문에서는 지봉의 文學觀, 學問觀, 經世觀, 對外觀 등에 관한 논의가 정치·역사적 관점에서 고찰되었으며, 정호훈(2018)의 논문에서는 지봉의 학문관을 정치적 인식과 연관하여 博學의 학풍을 통한 학문 및 현실 인식 등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다.¹²⁾ 지봉의 학문관을 유학의 본질을 바탕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여 본고에서는 선진유학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무실론에 입각한 그의 학문적 방향성과 성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그의 학문관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학문 방법론

지봉의 學問은 당시 학자들이 기본 경전으로 강조하는 四書三經뿐만 아니라 치국을 위한 배움을 내포하고 있는 六經도 함께 중요시했다.¹³⁾ 지봉은 당시 자신의 신세를 “시나 짓고 글이나 쓰는 詞人墨客으로 지목됨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¹⁴⁾ 단지 詞章을 위한 학문을 하길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봉의 생각은 그의 저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聖人の 학문을 위한 六經을 강조하고 있다.

六經은 성인의 마음이다.¹⁵⁾

聖人の 말은 분명 六經에 있다.¹⁶⁾

-
- 12) 韓永愚, 「이수광의 學問과 思想」,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金根洙, 「芝峯의 人間과 學問」,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79.
 정호훈, 「芝峯 李晬光의 학문관과 정치론」,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2018.
- 13) 지봉은 『芝峯類說』, 「經書部1」에서 『易經』, 『詩經』, 『書經』, 『禮記』, 『春秋』, 『周禮』와 『芝峯類說』, 「經書部2」에서 『論語』, 『孟子』, 『中庸』, 『大學』의 내용을 발췌하여 의견을 서술함.
- 14) 『芝峯集』, 권21, 「雜著」, 學戒, “世且小視 因襲故套 例以詞人墨客目之 每聞此言 輒自羞愧不寧者彌日”
- 15) 『芝峯集』, 권29, 「警語雜編」, “六經 聖人之心也”

지봉은 선진유학의 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當代의 사서삼경 위주의 보편적 공부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학문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聖學을 통한 先儒들의 많은 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가 주장한 博學의 학문방법과도 일맥한다. 육경은 공자가 산정한 경진으로 『禮記』, 「經解篇」을 보면 “시경을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음에 빠지고, 서경을 배우지 않으면 속임에 넘어가고, 악경을 배우지 못하면 사치스럽고, 역경을 배우지 못하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예경을 배우지 못하면 번잡함의 순서를 알지 못하게 되고, 춘추를 배우지 못하면 난리를 막지 못하게 된다.”¹⁷⁾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六經을 강조한 것은 지봉이 생각하는 치국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배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六經의 공부는 단순한 문자로서의 공부가 아닌 마음으로써 체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는 자가 마음으로써 經을 구하면 얻을 것이요, 문자로써 經을 보면 잃을 것이다.¹⁸⁾

배우는 자가 經을 읽어서 체득하면 六經이 나의 말이 되고, 그러하지 않으면 經은 經이요, 나는 나다.¹⁹⁾

지봉은 經을 읽는 목적이 단순한 문자 공부라 아닌 ‘經’ 자체의 체득을 통한 자기수양으로 보고 있다. 공부의 목적이 문자공부가 아닌 체득임을 밝히고 있다. 朱熹의 「讀大學法」에 “『大學』을 읽는 것이 어찌 그 言語를 봄에 있겠는가? 바로 이 마음에 어떠한가를 징험하고자 하는 것이니 …… 하나라도 이르지 않음이 있다면 용맹하게 분발하고 뛰어 일어나 그치지 않아야 반드시 長進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면 책은

16) 『芝峯集』, 권29, 「警語雜編」, “聖人之言 著在六經”

17) 『禮記』, 「經解篇」, 1장, “故詩之失愚, 書之失誣, 樂之失奢, 易之失賊, 禮之失煩, 春秋之失亂”

18) 『芝峯集』, 권29, 「警語雜編」, “學者以心求經則得之 以文字看經則失之”

19) 『芝峯集』, 권29, 「警語雜編」, “學者讀經而有得焉 則六經爲我之言 不然則經自經自我矣”

책대로이고 나는 나대로일 것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²⁰⁾라 하여 經을 읽는 목적이 단순히 言語, 文字를 보는 공부라 아닌 마음으로 체득하는 공부라고 제시하고 있다. 지봉 역시 아무리 六經을 암기하고 공부하여도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면 자기 수양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봉의 체득을 위한 공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나이 열다섯에 (공부의) 방향을 대강 들어서 守放心 일절을 일삼다가 문자에만 잘못 빠져서 반생을 허비했다. 스스로 잘못을 아는 나이를 넘어서 문득 깨달아 옛 습관을 씻어 없애고자 하였다. 요사이 옛 성현의 말씀을 취하여 반복하여 깊이 즐기므로써 道體의 있는 바를 구하였는데, 묵묵히 마음으로 이해 되어 얻음이 있는 것 같았다. 도가나 불교의 학설에 이르러서는 서로 같고 다른 점과, 얻고 잃는 점을 깨달아 미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²¹⁾

지봉은 자신의 공부 방향을 守放心에 두고 단지 守放心이라는 문자 공부에 빠져 스스로의 인생을 허비함을 질타하였지만, 스스로 문자중심의 공부에 매달렸던 과거에서 탈피하고 그 근본원리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는 聖賢의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守放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守放心을 위한 공부방법이 잘못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단순히 지식적 앎이 아닌 알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 유지하여 스스로 체득하는 실천중심, 지행일치의 학문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봉의 학문 방향은 문자와 이론 중심의 학문이 아닌 스스로 말했듯이 마음으로써 구하고 체득하는 실천 중심의 학문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문의

20) 朱熹, 「讀大學法」, “讀大學 豈在看他言語 正欲驗之於心如何 如好好色 惡惡臭 試驗之 吾心 果能好善惡惡如此乎 閒居爲不善 是果有此乎 一有不至 則勇猛奮躍不已 必有長進 今不知如此 則書自書 我自我 何益之有”

21) 『芝峯集』, 권21, 「雜著」, 學戒, “余自年十五 粗聞向方 從事於收放心一節 而爲文字所誤 虛度半生 越自知非之歲 懼然覺悟 思欲洗除舊習 間就古聖賢言語 反復尋玩 以求道體之所在 而默與心會 似有見得 至於老釋之說 其同異得失 亦頗領略 明知其不足惑也”

방법은 문자가 아닌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봉은 체득을 통한 실천에 학문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배움은 익힘을 귀하게 여긴다. 익히면 익숙해지고, 익히지 않으면 생소하다. 배우는 자가 함양성찰하는 것은 익히기 위함이다. 쌓아서 義가 정밀해지고 仁에 익숙하게 되는 것은 그 효과이다. 대저 사람의 선악은 모두 익힘에 달려 있다. 선을 익히는 자는 선인이 되고, 악을 익히는 자는 악인이 된다. 그러므로 습관은 자연스러움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²²⁾

학문의 방법적 면을 제시한 글로 학문은 익숙하게 할 때 까지 정진하는 것으로, 익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涵養省察을 통한 善을 행하고 惡을 제거하여 道理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됨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익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봉의 학문 방법은 익힘을 통한 익숙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善惡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곧 實을 의미하며, 지봉은 이 善惡을 판단하고 익숙하게 된 후 그의 학문에 대한 致用性을 강조한다.

배우는 것은 장차 활용하기 위함이다. 오직 마땅히 진실하게 공부하여 하루에 하루를 더하고 이틀에 이틀을 더하면, 자연히 마음과 뜻이 안으로 정해지고 기질이 점점 변하여 정성되고 밝은 영역에 이르게 된다.²³⁾

이 글은 학문의 치용성을 말하고 있으며, 학문의 내적 수양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곧, '敬', '誠', '明'의 수양을 통한 聖賢, 군자의 성취가

22)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學貴習 習則熟 不習則生 學者之涵養省察 所以習也 積而至於義精仁熟 其效也 大抵人之善惡 皆在乎習 習於善者爲善人 習於惡者爲惡人 故曰習慣如自然”

23) 『芝峯集』, 권22, 「雜著」, 條陳懋實箴子, “蓋學者將以致用 惟當實下工夫 一日有一日之益 二日有二日之益 則自然心志內定 氣質漸變 可至於誠明之域”

곧 지봉이 생각한 수기 측면의 학문이 지닌 치용성(致用性)이다.²⁴⁾ 또한 그는 『芝峯類說』에서 “『大學』의 ‘格物致知’는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誠意’ 이상은 행해야 할 조목이다. 『中庸』의 ‘博學’, ‘審問’, ‘慎思’, ‘明辯’은 알기 위한 것이고, ‘篤行’은 행해야 할 것이다.”²⁵⁾라 하여 학문의 방법은 ‘知’뿐만 아니라 반드시 ‘行’에서 마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문의 방법은 앎을 통한 실천에 있음을 강조한다.

陳眞晟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학문에 있어서 만약 참으로 안다면, 행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배우는 자는 아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진실로 아는 것이 어려우며, 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혹 그것을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면 진실로 알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은 까닭이다.”²⁶⁾

陳眞晟의 말을 인용하여 참된 학문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내용이다. 지봉이 생각하는 참된 학문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수기를 통한 致用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참된 학문의 최종 목적지로 지봉은 民生을 이야기한다.

道는 민생의 일상생활 속에 있다.²⁷⁾

지봉이 이야기하는 참된 학문의 최종 목적 또는 근본이 민생에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근본으로 아무리 좋은 聖學이라도 이를 가장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24) 尹絲淳, 「芝峯 李睟光의 務實思想」, 『퇴계학보』 90집, 퇴계학 연구원, 1996, p.81.

25) 『芝峯集』, 권21, 「雜著」, 學戒, “大學之格物致知 求所以知之也 誠意以上 卽所以行之之日也 至於中庸所謂博學審問慎思明辨四者 所以知之也 篤行者 所以行之也 聖賢教人 雖千言萬語 其要不過出此” 참조

26) 『芝峯類說』, 권5, 「儒道部」, 學問, “陳眞晟曰 人於此學 若眞知之則行在其中矣 余謂學者 非知之難 眞知爲難 非行之難 實踐爲難 其或知之而不能行者 由不能眞知故也”

27)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道在於民生日用之間”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봉은 학문의 최종 목적을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 민생을 위한 日用平常의 道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봉의 학문방법은 단지 性理를 위한 형이상학적 空理보다는 日用平常의 道理인 儒學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는 실천적 공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Ⅲ. 실천을 위한 심학

앞서 서술하였듯이 지봉은 항상 체득과 실천중심의 학문을 강조한다. 지봉은 체득과 실천 중심의 학문을 위한 마음 자세로 ‘마음은 곧 하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한 지봉의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곧 하늘이다. 마음의 신은 곧 하늘의 신이다. 대개 마음은 몸의 주인이요, 신은 마음의 주인이다. 시경에 이르길 신이 강림함을 헤아릴 수 없고 또, 말하길 신이 들어주어 마침내 화평해지리라 한 것과 같으니, 고로 군자는 마음을 섬김을 하늘을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하고, 마음을 보존함으로써 신을 보존해야 한다.²⁸⁾

여기서 지봉은 몸의 주인은 마음으로, 마음의 주인은 신으로 말하면서 마음의 신은 곧 하늘의 신이라 여겼다. 이는 마음속에 하늘이 있고, 하늘 속에 마음이 있으며, 하늘과 마음속에 신이 있다는 심천신일체(心天神一體)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⁹⁾ 마음과 하늘과 신은 같은 존재로 보면

28)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凡人之心 卽天也 心之神 卽天之神也 蓋心者 身之主 神者 心之主 如詩曰神之格思 不可度思 又曰神之聽之 終和且平是已 故君子事心如事天 存心以存神也”

29) 한영우, 『실학의 선구자』, 경세원, 2007, p.128.

서 스스로의 능동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상대적 인식을 가지면서 마음이 곧 하늘이라는 心卽天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天心이 人心이고, 天性이 人性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心卽天 사상은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곧 하늘이다. 한결같이 선을 생각하면 상서로운 별과 경사로운 구름이요, 한결같이 악을 생각하면 사나운 바람과 세찬 비로다.³⁰⁾

마음과 하늘을 不可分의 관계로 여기는 지봉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본래 『菜根譚』의 “마음의 본체는 곧 하늘의 본체이다. 일념의 기쁨은 상서로운 별과 경사로운 구름이요, 일념의 노여움은 진동하는 우레와 사나운 폭우도다.”³¹⁾에서 인용한 구절로 지봉은 그 天과 心의 본질을 善惡으로 구분하면서 善한 本性을 연마할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봉은 天은 善한 本性을 통한 완벽한 도덕성의 상징이며, 이는 곧 인간의 마음의 모습으로 心卽天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心卽天 사상을 지봉은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善惡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道理가 있음을 말한다.

하늘은 살림으로 덕을 삼고, 자연으로 도를 삼는다. 사람이 하늘을 본받아 살림으로써 덕을 삼으면 天德이요, 자연으로써 도를 삼으면 天道다. 총괄하여 그것을 말하면 誠이다. 고로 誠은 곧 聖이요 聖은 곧 天이다.³²⁾

여기서 지봉은 하늘은 저절로 德과 道를 이룸에 반해, 사람은 저절로 이루지 않고 하늘을 체득한 후에 天德이 되고, 자연으로써 도를 삼아야 天

30) 『芝峯類說』, 권5, 「儒道部」, 心學, “凡人之心卽天也 一念之善 景星慶雲 一念之惡 烈風疾雨”

31) 『菜根譚』, “心體便是天體 一念之喜 景星慶雲 一念之怒 震雷暴雨”

32)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天以生爲德 以自然爲道 人能體天 而以生爲德則 天德也 以自然爲道則天道也 總而言之則誠也 故誠則聖矣 聖則天矣”

道가 됨을 말하고 있다. 『中庸』에 “성실함은 하늘의 도요, 성실하려고 함은 사람의 도다. ……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히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백 번하고, 다른 사람이 열 번에 능하면 나는 천 번 한다. 과연 이러한 도가 능히 행해진다면,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명석해지며 비록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강해진다.”³³⁾라고 하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단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天道에 다다를 수 있음을 지봉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은 곧 생명ियो, 자연은 무위자연으로 사람이 하늘에서 본받는 것은 곧 생명에 대한 사랑과 무위자연이다.³⁴⁾ 이러한 자세는 곧 誠으로 誠을 진실함을 지극히 하면 사람 마음이 하늘이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心即天 사상은 내 마음을 미루어 다른 마음에게까지 가는 성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天心이 聖心이 되고 聖心은 곧 人心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선유의 심법을 말함은 상세하다. 참견을 용납할 것이 없다. 그러나 妄意인생으로 靜한 것은 하늘의 性ियो, 감하여 통하는 것은 性의 情이다. 性은 곧 心의 본체요 情은 곧 心의 쓰임이다. 心과 性은 진실로 분리해 말할 수 없다. 心은 인신의 주체가 된다. 고로 橫渠(張載)가 말하기를, “心統性情”이라 하였으니 統은 統會之義이다. 그러나 주자가 또한 말하기를, “心包性情”이라 하였다. 包는 한 물체에 두 물건을 저장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또 마음은 본디 일삼음이 없다. 일이 도달하면 응한다. 일이 밖에서부터 이르는 것이니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지금 體用的 動靜을 말하지 않고 단지 心包性情을 하여 온갖 일이 이곳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자세한 사정을 빠뜨린 것과 같다.”³⁵⁾

33) 『中庸章句』, 「第20章」,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有弗學 學之 弗能 弗措也 有弗問 問之 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 弗得 弗措也 有弗辨 辨之 弗明 弗措也 有弗行 行之 弗篤 弗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 참고.

34) 한영우, 『실학의 선구자』, 경세원, 2007, pp.129-130.

橫渠와 朱熹의 말을 인용하여 心의 本體에 대해 논한 글이다. 心은 人身의 主宰로 心의 本體는 性이고, 心의 作用은 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마음은 性情을 주재한다 하여 心統性情이라하여 心이 性과 情을 선택하는 주체자라는 것이다. 행위 주체로 선택하는 것이 心으로, 心을 모든 행위의 주체로 보고 朱熹의 '心包性情'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어 지봉의 心이 性情을 統會한다는 생각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孟子集註』에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神明이니 모든 이치를 갖추고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³⁶⁾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神明은 明德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心이 된다. 모든 이치를 갖추어 모든 일에 응함은 『大學集註』에 “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로 虛靈不昧하여 모든 이치를 갖추어서 모든 일에 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虛靈不昧’는 ‘心’이고 ‘具衆理’와 ‘應萬事’는 각각 ‘性’과 ‘情’으로 ‘心’이 性情을 주재하여 心包性情이 아닌 心統性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봉이 당시 획일적인 학문적 일변도에서 벗어난 심학에 대한 자신만의 학문수양의 실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봉의 심학에 대한 학문 수양은 단순히 공리를 위한 문자 공부라 아닌 실천을 위한 끊임없는 수양 공부로 이어진다.

주자가 말한 학문하는 방법은 오로지 독서공리 위에 두고 있다. 고로 나는 존양 공부로 주자의 요지를 발명하고자 하는데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³⁷⁾

내가 생각건대 배움은 존양으로써 요체를 삼는다. 배우고 기르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것과 같고, 기르고 보존하지 않으면 기르지 않는 것과 같다. 대저 기르고 보존하지 않는 것은 또한 그 성찰의 공부가 이르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³⁸⁾

35) 『芝峯集』, 권26, 「題後」, 題蔡子履心法論後, “愚謂先儒之說心法詳矣 毋容置喙 然妄意人生而靜 天之性也 感而遂通 性之情也 性卽心之體 情卽心之用 心與性固不可分而言之 而心爲人身之主宰 故橫渠謂心統性情 統是統會之義 而朱子又謂心包性情 包字則如以一物藏貯兩件物者 然未知如何 且心本無事 事至而應者也 事從外至 非生於心者也 今不言體用動靜 而直謂心包性情 百事出焉則似欠曲折”

36) 『孟子』, 「盡心章句 上」, 1장, 朱熹註, “心者 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37)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朱子所云爲學 專在讀書窮理上 故愚欲以存養底工夫 發明朱子之旨 未知如何”

지봉은 '독서공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아는 것에만 그치는 공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실천이 없는 窮理의 空理보다는 실천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존양성찰의 수양공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움은 存養으로 요체를 삼아야 함을 말하면서 배우면 반드시 길러야 하고 기르면 반드시 보존해야 省察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孟子』에서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性을 아나니, 그 性을 알면 그 하늘을 안다.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性을 기름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³⁹⁾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잘 길러 하늘을 따르라는 말로 지봉이 말한 '마음은 살아 있는 물건이다. 천리를 따르면 살고 인욕에 붙잡히면 죽는다.'⁴⁰⁾라는 말과 부합하는 것으로 끊임없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봉은 본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착한 마음인 存養을 꾸준히 기르고 마음의 작용함을 중요시 하여 省察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수양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봉은 이러한 수양론적 심학을 제시하면서 심성을 수양하는 수양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생각건대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건이다. 일념의 순간에 혹 하늘에 오르고, 혹은 연못에 떨어진다. (마음은) 잡으면 존재하고 놓으면 없어지니 보존하고 지킴이 심히 어렵다. 고로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지경(마음속에 경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로 삼고 존양성찰해야 그 공효를 이룰 수 있다.⁴¹⁾

38)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愚謂學以存養爲要 學而不養 猶不學也 養而不存 猶不養也 夫養之而不存 亦其省察之功 有所未至故也”

39) 『孟子』, 「盡心章句」上, 1장,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40)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心是活物 而循乎天理則活 梏於人欲則死 死則不活 活則不死”

41) 『芝峯集』, 권26, 「題後」, 題蔡子履心法論後, “愚謂心者 活物也 一念之頃 或升而天 或降而淵 操存舍亡 保守甚難 故學者須以持敬爲主 存養省察 交致其功”

心에 대한 지봉은 마음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 마음을 살아있는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주체성은 한결같은 敬을 유지해야 이루어짐을 말하면서 이 敬을 주로하여 存養省察하기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정한 마음의 敬을 기본 바탕으로 마음을 항상 같고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操存舍亡’은 처음 『孟子』에서 보이는데, 『孟子』에 孔子의 말을 인용하여 “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어서 출입함에 때가 없으며, 그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오직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⁴²⁾라는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음은 定處가 없어 항상 보존해야 하는 물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봉은 이 마음의 보존을 위해 잠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그 보존하고 기쁨은 반드시 敬으로써 해야 한다면서 存養省察을 위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지봉이 存養省察을 위해 중요시 하는 敬에 대한 생각은 다음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마음의 본체는 본래 크다. 물욕에 가리게 되면 큰 것이 작아진다. 敬에 주력하면 가린 것이 저절로 제거되고, 가린 것이 제거되면 작았던 것이 커진다.⁴³⁾

가정황제가 지은 경일잠에 이르길 “사람 마음의 덕은 敬이 아니면 모이지 않고, 한결같지 않으면 불순해진다.”라고 하였다. 대개 敬하면 마음이 한결 같고, 한결 같으면 誠인 것이다.⁴⁴⁾

지봉은 마음의 본체를 크고 존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사사로운 이욕에 사로잡히면 그 본체가 작아짐을 경계하면서 마음의 작아짐을 해결하기 위해 敬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敬에 주력한다면 결국 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誠은 『中庸』에 “성실한 것은 하늘의

42) 『孟子』, 「告子章句 上」, 8장,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43) 『芝峯集』, 권25, 「薛文淸讀書錄解」, “心體本大 爲物蔽之則大者小矣 主敬則蔽自去 蔽去則小者大矣”

44) 『芝峯集』, 권27, 「秉燭雜記」 “嘉靖皇帝製敬一箴 以爲人心之德 匪敬不聚 匪一不純 云蓋敬則一矣 一則誠矣”

道요, 성실히 하려는 것은 사람의 道다. 성실한 것은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얻어서 從容히 道에 맞으니, 聖人이요, 성실히 하려는 것은 善을 택하여 굳게 잡는 것이다.”⁴⁵⁾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誠은 곧 하늘의 道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誠之 역시 꾸준히 善을 택해 굳게 잡고 있으면 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봉 역시 사람이 태어나 저절로 敬을 통해 誠이 될 수 없는 마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敬을 꾸준히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은 곧 천심이 됨을 지봉은 말하면서 사람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마음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敬으로 항상 수양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치로써 있어야 할 것을 꾸준히 연마하여 존재로써의 있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봉이 말하는 심학의 요지는 敬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유지하여 한순간도 놓지 않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봉의 心學은 文字中心, 理論中心의 심학이 아니라 체득과 실천중심의 심학⁴⁶⁾으로 존양성찰을 위한 내면 수양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지봉의 심학은 讀書窮理의 이론적 면만을 강조하여 자칫 문자공부에만 빠질 위험이 있는 심학과 王陽明의 良知를 강조하여 자칫 수양을 위한 공부를 게을리하는 심학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그 중 장점만을 수용하여 자신만의 심학을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봉은 자신만의 심학 수양을 그가 떠나던 해 까지 몸소 행하여 스스로 날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이는 「自新箴」⁴⁷⁾

45) 『中庸章句』, 「第20章」,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46) 李洪柱, 「芝峯 李睟光의 實學思想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政治學科, 博士學位論文, 1998, p.100.

47) 『芝峯集』, 권21, 「雜著」, 自新箴, “崇禎元年戊辰元日 爲立春也 吾衰益甚 而學不加新 於是惕然有感 箴以自省 斗杓建新兮歲聿其新 春氣肇新兮萬物咸新 人從歲新兮胡不自新 君子自新兮其德日新 日新又新兮新而益新 如鏡磨新兮光彩漸新 我不獨新兮與民俱新 我民既新兮邦命亦新 年不再新兮德則更新 人苟得新兮雖老猶新 老何由新兮惟學能新 改過則新兮遷善則新 捨舊就新兮是謂一新 聖賢道新兮亘古長新

에 잘 나타나 있다. 스스로를 닮고 날로 새롭게 정진하고 실천하는 유학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IV. 자기 수양을 통한 自他 인식

지봉은 心을 하늘로 보는 心即天사상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모든 性情을 주재하는 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지봉의 입장은 마음의 性情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에 까지 이르게 된다. 곧, 만물의 이치는 만물에 있는 것이 아닌 一身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른바 物我一體에 대한 인식론을 주장한다.

物 또한 나고, 나 또한 物이다. 고로 성인은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物이 없는 것이다.⁴⁸⁾

지봉은 物과 나의 관계를 동등하고 떠날 수 없는 관계로 보았다. 物을 봄에 일체의 나를 제거한 후 物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비우면 내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는 곧 성인이 된다는 것이다. 잠시도 物과 내가 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中庸』에 “道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道가 아니다.” 라고 하여 道를 마땅히 실행해야 하는 이치로 모든 事物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시도 소홀히 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음을 비우고 存養省察을 이루어 聖人の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지봉의 입장과도 연관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傳에 “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 하였다. 대저 천지만물은 본디 나와 일체이다. 고로 만물의 이치를 잘 궁리하는 자는 만물에서 하지 않고 일신에서 한다. 사물로 사물을 보고 사물에 부림을 당하지 않으면, 울조림이 사물에 있고 나에게 있지 않게 되니 이른바 사무사다.⁴⁹⁾

48)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物亦我也 我亦物也 故聖人無我 能無我則無物”

傳의 말을 차용하여 모든 만물이 스스로의 의지와 연관됨을 말하고 있다.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고자 한다면 자신에서 찾지 않고 사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물과 나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大學』에 “지식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⁵⁰⁾라는 말이 있다. 이를 朱熹가 다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사물의 이치를 앞의 끝에 이를 수 있도록 정진하여 자기 마음속에 밝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 하면 그 다음은 내 마음을 극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物我一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지봉은 物과 나를 상호 의존적으로 파악하고 따로 분리하지 않으며 드러내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피력하고, 나와 사물의 구분이 없고 천지 만물이 하나로 보고 私慾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孟子』에서 “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실하게 하면 즐거움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힘써 ‘恕’를 실천하면 ‘仁’을 구하는데 이것보다 가까운 것은 없다.”라 하였는데, 이는 邪慾을 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思無邪’인 것이다.

소자가 말하기를, “사물을 보는 것은 눈으로써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써 보는 것이요, 마음으로 써 보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써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건대 성인의 마음은 본래 만물을 갖추었으나 一物도 없는 것이다. 대저 오직 物이 없어야 이내 物을 볼 수 있다. 대개 物을 쫓는 자는 物에 가리워지고 마음을 비우는 자는 족히 物을 밝힐 수 있는 이유이다.”⁵¹⁾

49)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傳曰 萬物皆備於我矣 夫天地萬物 本吾一體 故善窮萬物之理者 不于萬物 于一身 以物觀物而不役於物 則吟詠在物而不在我 所謂思無邪者也”

50) 『大學章句』, 「經1章」, “致知在格物”

51)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邵子曰 觀物者 非觀之以目而觀之以心 非觀之以心而觀之以理 愚謂聖人之心 本備萬物 而無一物 夫惟無物 乃能見物 蓋逐物者蔽於物 而虛心者足以燭物故也”

만물에 대해 자신의 주관을 빼고 보아야 하며, 사적 이욕과 사사로움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의 주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物의 입장에서부터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그 理로써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음을 비워야 物을 밝힐 수 있다고 한다. 物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을 밝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봉이 강조한 사적 욕망을 없애기 위해 敬을 한결같이 하여 存養省察을 이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면 저절로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聖人の 경지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봉은 간과하지 않는다.

왕양명이 말하기를, “대저 良知는 시비의 마음이 사람에게 모두 있는 것이니 배우지 않아도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는다.”라고 하였다. 나와 같지 않다.⁵²⁾

지봉은 聖人の 마음을 얻는 것은 物과 내가 하나이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왕양명의 致良知說의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선천적인 是非之心을 말하고 있지만, 지봉은 良知가 사람에게 모두 있지만,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본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봉은 이러한 본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에게 공정한 사람은 남에게도 공정하고, 남에게 공정한 사람은 사물에 도 공정하다. 이것을 大公이라 하니 확연하게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⁵³⁾

소자가 말하기를, “처지를 바꾸어 처하는 곳에는 내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이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남과 나 사이에 항상 처지를

52)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王守仁曰 夫良知者 卽所謂是非之心人皆有之 不待學而有 不待慮而得者也 與此不同”

53) 『芝峯集』, 권24, 「雜錄」, 采薪雜錄, “公於己者公於人 公於人者公於物 是之謂大公 廓然與天地一矣”

바꾸어 생각하면, 피차 평등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저절로 남에게 배풀지 아니하는 것이 이른바 '恕'이다. '恕'에 능하면 '無我'가 된다.⁵⁴⁾

첫 인용 구절에서 지봉은 자기와 타인과 사물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천지만물을 나와 더불어 하나로 생각하여 내가 하고자 하면,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사물까지도 생각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論語』에 “대저 仁者는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한다.”⁵⁵⁾라는 말이 있는데, 지봉의 말과 결부된다. 자기로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결국 大公無私의 길로 '仁'의 마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仁을 실현하는 최고의 경지가 物我를 하나로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 구절에서 지봉은 孟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物과 내가 처지를 바꾸면 나의 사적인 마음이 없어져 모두 평등하다고 하여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恕'의 마음 상태를 無我라 말하고 있다. 『論語』에 “가까운데서 취해 비유할 수 있으면 仁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라는 말이 있는데, 지봉이 말한 '恕'와 결부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까지 미루어야 함은 仁을 행하는 방법인 것이다. 결국, 仁의 실천을 통해 私慾을 이겨낸 無我的 상태로 物과 내가 하나가 됨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봉은 몰아일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天地萬物과의 物我一體사상을 설명하면서 私慾을 없애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모두 평등해지는 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仁의 적극적인 실현과 함께 소극적 仁의 실현도 함께 주장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봉의 학문 방법은 敬과 存養省察을 통한 심학에 역

54) 『芝峯集』, 권28, 「秉燭雜記」, “邵子曰 易地而處則無我也 愚謂此言最切 人於物我之間 常思易地以處 則彼此平等 己所不欲 自不施於人 所謂恕也 能恕則無我矣”

55) 『論語』, 「雍也篇」, 28장,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56) 『論語』, 「雍也篇」, 28장,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점을 두었다. 지봉은 단순한 讀書窮理는 문자학에 빠져 실질적 실천력이 부족할 수 있고, 致良知說은 비록 타고난 良知를 강조하지만 자기성찰을 위한 학문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봉은 이 둘의 장점을 잘 받아 들여 자신만의 심학을 체득하는 방법을 깨우친다. 또한, 지봉의 학문은 程子, 邵子, 朱子의 설을 절충하고, 도가의 무위자연과 자기절제를 강조하는 養生說을 합쳐 克己와 修己를 통한 大公의 실현에 초점을 둔 것이다.⁵⁷⁾ 당대의 기존 학자들의 공리공론적 일관된 학문관에서 벗어난 지봉만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학문관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지봉의 학문은 다방면의 학문을 수용·절충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학문을 이해하면서, 자기 성찰을 통한 수양으로 유학의 학문 범주를 따르고 있다.

V. 결 론

지봉의 學問은 당시 학자들이 강조하는 四書三經뿐만 아니라 六經도 그의 학문적 토대인 기본 경전으로 중요시 한다. 지봉은 당시 자신의 신세를 시나 짓고 글이나 쓰는 詞人墨客으로 지목됨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단지 詞章을 위한 학문을 하길 원하지 않았다. 지봉이 六經을 강조한 이유는 『禮記』, 『經解篇』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치국을 위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배움임을 내포하고 있어서다. 六經의 공부는 단순한 문자로써의 공부라 아닌 마음으로써 체득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經을 읽는 기본은 단순한 문자 공부가 아닌 經 자체의 체득을 통한 자기수양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득을 하기 위해서 지봉은 학문방법으로 학문의 익힘을 통한 인간의 성숙함을 강조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善惡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이 善惡을 판단하고 익숙하게 된 후 지봉은 그 학문에 대한 致用성을 주장한다. 곧, ‘敬’, ‘誠’, ‘明’의 수양을

57) 한영우, 『실학의 선구자』, 경세원, 2007, p.135.

통한 聖賢, 군자의 성취가 곧 지봉이 생각한 수기 측면의 학문이 지닌 致用性이다. 더 나아가 학문의 방법은 앎을 통한 실천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학문을 참학문으로 정의하고 참학문의 최종 목적은 민생의 의식주 해결로 보고 있어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 민생을 위한 日用平常의 학문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봉의 학문은 체득과 실천 중심의 학문을 위한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본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착한 마음인 存養을 꾸준히 기르고 마음의 작용함을 중요시 하여 省察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수양론적 심학을 보이고 있다. 지봉은 敬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유지하여 文字中心, 理論中心의 심학이 아니라 체득과 실천중심의 학문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봉은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모든 性情을 주재하는 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지봉의 입장은 마음의 性情뿐만 아니라 천지만물에 까지 이르는 物我一體에 대한 인식론을 주장하였다. 지봉은 天地萬物과의 物我一體사상을 통해 私慾을 없애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모두 평등해지는 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결국, 지봉의 학문은 다방면의 학문을 수용 절충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학문을 이해하면서 자기 성찰을 통한 수양으로 이어지는 유학의 학문범주를 따르고 있다.

〈參考 文獻〉

『論語』, 『孟子』, 『大學』, 『中庸』, 『禮記』

李睟光, 『芝峯集』,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 199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김장태, 『한국 실학사상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8.

_____, 『韓國儒學史의 理解』, 한국학술정보(주), 2002.

南晩星, 『芝峯類說』 譯註, 乙酉文化社, 1994.

成百曉, 『論語集註』 譯註, 傳統文化研究會, 2002.

_____, 『孟子集註』, 譯註, 傳統文化研究會, 2001.

_____, 『大學中庸集註』 譯註, 傳統文化研究會, 1998.

申承云, 『禮記集說大全』 譯註, 傳統文化研究會, 2004.

윤사순, 『실학의 철학적 특성』, 나남, 2008.

한영우,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 경세원, 2007.

김문식, 「이수광의 자아 인식과 타자인식」,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2004.

金秉柱, 「芝峯 李睟光의 懋實의 經世思想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한문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金懸玉, 「正祖의 經世思想 研究 - 策問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반윤홍, 「芝峯 李睟光의 政治經濟思想」, 『사학연구』 25, 한국사학회, 1975.

徐仁源, 「芝峯 李睟光의 經濟思想」, 『동국역사교육』 2, 동국역사교육회, 1990.

尹文焄, 「芝峯 李睟光의 行政思想」, 『전주대학교 논문집』 30, 1985.

윤사순, 「芝峯 李睟光의 務實思想」, 『퇴계학보』 90, 퇴계학연구원, 1996.

李洪柱, 「芝峯 李睟光의 實學思想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정호훈, 「芝峯 李睟光의 學問觀과 政治論」, 『韓國實學研究』 35, 한국실학회, 2018.

韓永愚, 「李睟光의 學問과 思想」, 『한국문화』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2.

Abstract

Consideration about the JiBong LeeSuGwang's academic view point

Kim Byoung-joo*

This article's main subject are the analysis about the academic relationship of "Confucianism for Self-Cultivation" and "Governing People" in the JiBong LeeSuKwang's several works and the research about the direction of his academic view point. Some characteristic aspects of JiBong's academic view were examined.

First, JiBong emphasized not only "saseosamgyeong" that stressed by the other scholar of the same time but also "Yukgyeong" as the basic learning for the governing a country as the basic scriptures of his academic foundation. The greatest purpose of studying the "Yukgyeong" was to learn not as a simple messagebut as a mind, and to put it into practical use. Second, JiBong emphasized the method of learning based on the practice, and defined those as a true learning which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s about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for the public welfare. It was not a metaphysical study, but an academic book for everyday life. In addition, JiBo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ind attitude for learning and emphasized not character-oriented and theory-oriented but learning and practice-oriented learning Third, JiBong emphasized the discipline of the mind and realized it as the subject of all things, and tried to behave the "Ren" which could remove the selfish and conduct the equality of self and others, people and things. In conclusion, Jibong's scholarship accepts and compromises the diverse learning, and understands the learning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nd follows the academic category of practical Confucianism by self-reflection.

【Key words】 JiBong, Confucianism, academic view point, practical, practical use

투고일 : 5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 Admissions officer of Kongju Univ. / inner_moderation@naver.com